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 Sunday service, Cheon Bok Gung

Kook Jin Moon
September 2, 2012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 Sunday service, Cheon Bok Gung (8/26)**



 **Interfaith Peace Blessing Held in Bacolod, Philippines, 1050 couples (8/26)**





Rally for the Recovery of True Father's health and the Victory of Foundation Day in Kwangju (8/26)



 **Dr. Kook Jin Moon gave a presentation titled "Strong Kor" at Army Infantry School in Jeolla province (8/24)**

More than 1,000 military officers and soldiers attended.



 **Dr. Kook Jin Moon gave a presentation titled "Strong Korea?" at Yangju City Hall, Gyeonggi province (8/27)**

More than 300 City Hall officials and organizational leaders were in attendance.



* Chosun Times: "Rev. Moon moved to Unification Church hospital (8/31)

사회

의료 · 보건

"문선명, 현대의학으로 힘들어" 통일교 병원으로 이송

조선닷컴

기사

100자평(3)

입력 : 2012.08.31 09:15 | 수정 : 2012.08.31 13:42



▲ 문선명 통일교 총재, /조선일보DB

건강 악화로 '위독'하다고 알려진 문선명(92) 통일교 총재가 현대의학으로 건강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진단에 통일교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통일교 측은 "문 총재는 31일 통일교 성지인 경기 가평 청심국제병원으로 이송한 뒤 신도들의 기도 속에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석준호 통일교 세계부회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문 총재는 현재 공팔(신장)의 기능이 정지됐고, 간 기능도 급속도로 떨어져 가는 상태이며 인공기계에 의한 산소 공급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주치의 동의를 받아 발송한다'고 덧붙인 이 글은 전 세계 통일교도에게 공지됐다.

급 후송됐다.

문 총재는 미국 집회를 마치고 귀국한 지난 7월 16일부터 심한 감기를 앓았으며 지난 13일 폐렴이 악화돼 청심국제병원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 MBC News: "Unification Church Rev. Sun Myung Moon" (8/31)



뉴스 정치 경제 교육 기업 이슈분석

뉴스홈 > 뉴스 > 연예·스포츠

등록일자 2012년08월31일 10시42분

글자크기 [+] [x] [A] [B] [C]

통일교 문선명 총재, "현대의학으로 호전되기 어려워"

통일교 문선명 총재(92)가 현대의학으로는 호전되기 힘들다는 판단을 받았다. 문선명 총재는 통일교의 창시자로 지난 14일 통일교 행사 도중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쓰러져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성모병원 측에 의하면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문 총재를 통일교 성지인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병원으로 옮겨 신도의 기도와 정성 속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통일교 측은 보도했다.

* Korea Economic TV: "Rev. Sun Myung Moon moved to the Unification Church holy ground" (8/31)

최신뉴스

문선명, 현대의학 치료 불가.. 통일교 성지로 이송

기사

소셜댓글

입력 : 2012-08-31 10:59

문선명(92) 통일교 총재가 현대의학으로는 병세가 호전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통일교 성지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지난 30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문 총재가 31일 오후께 통일교 성지인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병원으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는 "서울성모병원 측은 입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에 따른 합병증 증세가 나타나 더 이상 현대의학기술로는 문 총재님의 병세를 호전시킬 길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족 및 통일교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 문 총재님께서 가평에 세우신 청심국제병원에서 신도들의 기도와 정성 속에서 전문적 치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교 측이 서울성모병원의 판단을 참고해 여러 사람이 오가는 서울 시내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보다는 영적 기운이 어린 성지에서 조용하게 집중 치료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통일교 창시자인 문 총재는 지난 14일 감기와 폐렴 합병증으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